인문연구 제8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7, No. 2, pp.35~58
http://dx.doi.org/10.21211/JHUM.87.2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のに」 사용 오류 연구

-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코퍼스와 비교하여 -

김혜민*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조사 방법
4. 조사 결과
5. 고찰
6.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난 일본어 접속조사 「のに」의 오류 양상을 조사하여,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및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코퍼스와 비교하였다.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 비해 「のに」의 오용률이 매우 높았으며, 「のに」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のに」의 한국어 대용어인 「는데」에는 포함되는 배

* 도쿄대학교 대학원 언어정보과학전공(박사과정 수료)

경 제시와 이유 제시 및 종결어미로 「のに」를 사용하는 오류가 많았다.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のに」의 오용률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률보다 높은 것은 교실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성인 학습자보다 일본인 어머니에 의해 일본어를 자연 습득한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오히려 모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어의 어휘에 비해 대응하는 한국어의 어휘의 범위가 더 클 경우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보편화된 결론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 언어 오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언어 전이, 연결어미

1. 서론

제2언어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언어의 잘못된 사용, 즉 오류가 종종 나타남을 알 수 있다.[1] 오류는 잘못된 언어 사용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과정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과도기적이며 불완전한 상태의 언어를 Selinker(1972)는 모어와 목표 언어와 구별되는 그 자체의 체계를 갖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중간 언어'라고 정의하였다.[2]

한편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중간 언어에서도 여러 오류가 나타

1) 아롈 지음, R. 김남국 역, 『언어접촉과 2개언어 상용』, 동인, 2009, pp. 158-177.

2) Selinker, L,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1972, pp. 209-215.

나는 것이 보고되었다. 아펠(2009)[3]은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단일 언어 사용 아동과 같은 언어 발달 단계를 거치지만,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전이되는 현상은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여러 발달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경우 모어가 다른 언어에 더 자주 전이된다. 또한 아펠(2009)[4]은 아동은 성인보다 더 자발적으로 제2언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중간 언어에서 나이 든 학습자가 어린 학습자보다 훨씬 더 전이를 보인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아펠 (2009)[5]이 지적하였듯이 제2언어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습득될 때 모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으며, 성인 학습자와의 대조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순 및 문법 구조가 매우 비슷한 언어이지만 두 언어의 차이에 의한 전이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자연 담화에서 나타난 일본어 접속조사「のに」의 오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코퍼스를 통해 이중언어 사용 아동과 동일한「のに」의 오류가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오류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のに」와「는데」의 의미 비교

아동의 오류를 살펴보기 전에 일본어 접속조사인「のに」의 의미

3) 앞의 책, pp. 185.
4) 앞의 책, p. 172.
5) 앞의 책, p. 163.

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연결어미[6] 「는데」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のに」는 기존의 사건을 설명하는 선행절과 그것과는 내용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후행절로 구성되는 역접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조사이며, 기대에 반하는 일에 대한 의외, 비난, 유감, 불만, 예상외 등의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7]

前田(2009)[8]는 「のに」의 의미를 같은 조건에 대해 의미적으로 대립하는 후행절이 이어지는 문장을 접속하는 「역원인・이유문」, 선행절과 후행절 중에서 무언가가 대조적인 것을 나타내는 「비병렬・대조」, 선행절에 나타난 화자의 희망이나 예측, 예상 또는 의도가 후행절에서 다른 경우를 나타내는 「예상외」, 문장에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부터 생긴 화자의 기대를 배신한 비의도적인 사태가 후행절에 쓰여진 「의도치 않은 사태」, 후행절에 화자의 감정, 평가가 나타나는 「감정・평가」로 분류하였다.

(1) 明日試驗があるのに、誰も勉强していません。
(내일 시험이 있는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
(2) お金があるのに、時間はない。
(돈이 있는데, 시간은 없다.)
(3) 駄目だと思っていたのに、合格した。
(안 될 줄 알았는데 합격했다.)
(4) 受驗シーズンが迫っているのに、風邪がはやっているようです。
(수험 시즌이 다가오는데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

---

6) 「のに」와 「는데」는 문장 내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のに」는 활용어의 연체형에 붙기 때문에 일본어 문법에서 접속조사(혹은 종조사)로 취급하며, 「는데」는 어간에 붙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에서 연결어미(혹은 종결어미)로 취급한다.

7) 池上素子, 「「のに」・「ながら」・「ものの」・「けれども」の使い分けについて」, 北海道大學留學生センター紀要 1, 1997, pp. 19-20.

8) 前田直子, 『日本語の複文』, くろしお出版, 2009, pp. 200-212.

(5) お若いのに、珍しいですなあ。
(젊은데 특이하네요.)

위의 (1)~(5)의 예[9]는 각각 (1)역원인・이유문, (2)비병렬・대조, (3)예상외, (4)의도치 않은 사태, (5)감정・평가의 예이다. 이 중 역원인・이유문, 비병렬・대조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립을 나타내며, 예상외, 의도치 않은 사태, 감정・평가의 경우 명제나 청자가 '당연히 ~할 것인데'라는 예상의 빗나감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10] 前田(2009)[11]는「のに」문장의 대부분은 역접접속조사「けど」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적한다.「けど」도 예측이 빗나간 사태를 나타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의외감이나 놀람과 같은 화자의 감정은「のに」에 비해 약하다(前田 2009).[12]

한편, 접속조사「のに」는 후행절이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고 문장이「のに」로 끝나는 종조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Aのに。」라는 언어 형식은 후행절 없이 자체만으로 완결되며, 발화의도에 관한 의외, 아쉬움, 불만, 낙담, 공포, 놀람의 감정을 나타낸다(前田 2009).[13]

즉 일본어 접속조사「のに」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립을 나타내며, 의외, 비난, 유감, 불만, 예상외 등의 화자의 감정을 덧붙여지기도 한다. 또한, 후행절이 생략되어 종조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어 연결어미「는데」에도 대립의 의미는 있지만 가

9) (1)에서(5)까지의 예문은 모두 前田(2009:200~210)에서 발췌하였다.
10) 池上素子,「「けれど」と「のに」」, 北海道大學留學生センター紀要 3, 1999, pp. 18-20.
11) 앞의 책 p. 206.
12) 앞의 책 p. 206.
13) 앞의 책 pp. 208-210.

장 보편적인 의미는 배경 제시[14]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는데」[15]의 첫 번째 의미로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라고 풀이한다. 이소현(2011)[16]은 세종 말뭉치를 분석하여 「는데」의 의미를 빈도순으로 정리하였는데 그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상세 설명과 배경 제시였다.

기본적인 의미가 배경 제시이기는 하지만 「는데」 역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립 관계를 나타낸다. 이소현(2011)[17]은 기존 연구에서 「는데」의 의미를 연구자들에 따라 크게 '설명, 배경, 상황, 반대(대조, 대립)'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 설명은 선행절에 상황이 ・제시되거나 후행절에 선행절의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배경은 후행절에는 주정보가 담겨 있고 선행절에는 주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 정보가 있어, 선행절에서 보조 정보를 배경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은 후행절 사태를 말하기 위해 선행절에 그에 적절한 문맥적 상황을 도입한다는 관점으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손재은(2007)[18]은 그 외의 의미로 선행절의 사태로 인해 일반

---

14) '배경 제시'는 연구자마다 칭하는 용어가 다르다. 이기동(2000)은 '배경 설정', 김용석(1981)은 '상황 제시'(이소현 2011: 276에서 재인용), 손재은(2007)은 '배경설명관계'라고 하였으며, 유남순(2011)은 '도입'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의미를 자세히 구분하기보다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한다는 점이 「のに」와 상이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배경, 상황, 도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배경 제시'를 사용하기로 한다.

1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ㄴ데'로 검색하였다.

16) 이소현,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 58-60.

17) 이소현, 「구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수사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22-4, 2011, pp. 276-278.

18) 손재은, 「연결어미 '-ㄴ데'의 수업 지도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후행절에 나타나는 양보 설명 관계, 후행절에서 상대방에게 지시, 명령, 제안하기 위해 선행절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 설명 관계를 들었다.

(6) 값이 비싼데 물건은 좋다.
(7) 겨울인데 춥지가 않다.
(8) 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9) 늦었는데 빨리 하세요.

예(6)[19]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립을 보여준다. (7)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춥지 않다는 일반적인 예상과 어긋남을 나타낸다. (8)는'정말 재미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선행절에서 '영화를 봤다'라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특별한 의미 관계가 성립된다기보다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효과적인 이야기 전개를 위해 선행절에 놓이게 된다. 또한 (9)의 이유 설명 관계는 '늦었으니까 빨리 하세요'와 같이「니까」로 바꿀 수 있지만「는데」의 경우 은근한 암시로 의미를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손재은 2007).[20]

이 외에도 발화 끝에서 종결어미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처럼 쓰일 때에는 그 기능과 의미가 바뀐다. 즉 문장 종결 기능 수행하며, 연결어미일 때와는 다른 의미로의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듯 연결어미가 문장의 끝에서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현상은 한국인들의 실제 발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21] 종결 기능을 하는「는데」는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

『한국어 교육』18, 2007, pp. 190-196.

19) (6)에서(9)까지의 예문은 모두 손재은(2007:191-196)에서 발췌하였다.

20) 위의 논문, p. 196.

21) 손옥현・김영주,「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회,『한국어 의미학』28, 2009, p. 50.

는 연결어미로 명제나 청자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표현하게 된다.[22]

(10) 점심에 과식을 했나 봐. 체한 것 같은데.

위의 예(10)[23]의 경우 '체한 것 같아.'와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는데」를 사용함으로써 명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본어 접속조사 「のに」와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 모두 여러 종류의 의미를 포함하는 다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のに」와 「는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 崔明姬(2009)[24]에서는 소설과 시나리오의 번역 자료를 통해 일본어 「のに」의 모든 용법이 한국어 「는데」에 대응된다고 하였다. 유남숙(2011)[25]은 보다 세부적으로 「のに」와 「는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のに」와 「는데」는 공통적으로 대조, 예상외(양보)의 의미를 갖지만, 「のに」와 달리 「는데」에는 배경 제시, 이유 제시와 같은 의미가 존재한다. 또한 종결 기능을 수행할 때에도 「는데」에 명제가 수행되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과 같은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는 「のに」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아닌 경우는 「のに」와 다른 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のに」에 대응하지 않는 「는데」의 배경 제시, 이유 제시, 시간 제시의 의미는 대체로 일본어 「けど」에 대응한다.

---

22) 조민하, 「'-는데'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40, 2011, pp. 249.

23) (10)의 예문은 송옥현・김영주(2009:50)에서 발췌하였다.

24) 崔明姬, 「日本語逆接助詞「ケド」と「ノニ」と朝鮮語接續語尾「는데」・「지만」の對照分析」, 九州大學韓國言語文化研究會, 『韓國言語文化研究』8, 2009, pp. 126-131.

25) 유남숙, 「「のに」と「는데」の對照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 9-25.

池上(1999)[26]는 이러한「けど」의 배경 제시, 화제 제시 등의 기능을 '주변적 용법'이라고 표현하면서「のに」에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のに」와 다른 의미를 갖는 종결 기능의 경우 문맥에 따라「けど・が, の・です, から・ので」등 다양한 일본어에 대응된다.

〈표 1〉「는데」의 의미와 대응하는 일본어

	는데	대응 일본어
연결어미/접속조사	대조	のに
	예상외	のに
	배경 제시	けど
	이유 제시	けど
	시간 제시	とき
종결어미/종조사	「のに」와 일치	のに
	「のに」와 비일치	けど・が, の・です, から・ので

한편, 대조의 의미를 갖는「のに」는 일본어「けど」와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와 바꿔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池上(1999)[27]는「のに」문장에서는 추론의 전제가 화자에게 절대적인 조건 관계가 되는 것에 반해「け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のに」의 대조, 예상외의 의미는「는데」에 대응하지만,「는데」의 배경 세시, 이유 제시 등의 의미는「のに」에 대응하지 않으며, 종결어미의 기능을 할 경우에도 화자의 아쉬움과 같은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는데」는「のに」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のに」에 비해「는데」의 의미 범위가

26) 앞의 논문, pp. 18-20.
27) 앞의 논문, pp. 18-21.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のに」와 「는데」의 차이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류로 이어지기도 한다.

2)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のに」 오류에 관한 연구

川口(2019)[28]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 62명[29]을 대상으로 시행한 언어 능력 테스트에 포함된 1인당 10분~15분 정도의 담화 자료를 토대로 일본어 접속조사의 사용과 오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이 다른 일본어 접속조사를 사용할 때에는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에 반해, 「のに」를 사용할 때에는 의미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며, 이는 「のに」의 한국어 대용어인 「는데」와 「のに」의 의미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川口(2019)[30]에서 「のに」의 오용률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63%, 중학년에서 61%, 고학년에서 67%로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60% 이상의 오류가 나타났다. 또한 오류의 대부분이 형식적인 오류가 아니라 「のに」의 의미와 문맥의 문제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다.

한편, 櫻井(1999)[31]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코퍼스를 통해

---

28) 川口慶子, 「韓國における継承日本語に關する研究」,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pp. 192-206.

29) 川口(2019)의 조사 대상 아동은 모두 아동G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한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이다. 조사 당시 한국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저학년 40%, 중학년 38%, 고학년 22%로 구성되어 있다(川口 2019:77-79).

30) 위의 논문, pp. 192-206.

31) 櫻井惠子, 「韓國の日本語學習者の談話展開の分析-接續表現を中心に」, 『일

대조나 예상외의 의미가 아닌 배경 제시의 의미로「のに」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모두에게서 한국어「는데」의 배경 제시, 이유 등의 의미로「のに」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のに」에는 포함되지 않는 의미이다. 즉「のに」에 대응하지 않는「는데」의 의미를「のに」에 확장시켜 대응시키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のに」에 대응하지 않는「는데」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아 어떤 의미가 가장 많이 잘못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のに」의 오류의 빈도 및 양상을 분석한 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のに」의 오류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3. 조사 방법

본고에서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のに」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동의 자연 담화에서「のに」의 사용을 추출하여 그 중 오류가 나타난 오용률을 조사하고 각 오류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아동의 오류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코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のに」의 사용을 추출하여 그 중 오류가 나타난 오용률을 조사하였다. 오류는 접속조사(연결어미) 중에서는「는데」에는

어일문학연구』제35집, 1999, p. 297.

속하지만 「のに」에는 속하지 않는 의미인 배경 제시와 이유 제시, 시간 제시로, 종조사(종결어미) 중에서는 「のに」 외의 용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市川(2010)[32]는 「のに」의 오용으로 형식상의 오류, 「けど・が」와의 혼동, 「ても」와의 혼동, 시제・상의 혼동을 들었는데, 여기서 「けど・が」와의 혼동, 「ても」와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가 「는데」에만 포함되는 배경, 이유, 시간 제시가 아닌 경우 따로 구분하였다.

1)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자연 담화 녹음[33]

아동(이하, 아동G라고 한다)은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다. 2012년 6월 생으로 조사 당시에는 한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아동G는 태어나서는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유치원에 입학한 뒤로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동G에게 늘 일본어로 말을 걸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일본어로 대화하는 일이 많다. 일본어 능력은 중상 레벨로 판단하였다.

아동의 담화 녹음은 아동이 만 4세 10개월에서 5세였던 2017년과 아동이 만 5세 10개월에서 5세 11개월이었던 2018년에 두 차례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녹음은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녹음되었으며, 총 녹음 시간은 35시간 41분 29초이다.

---

32) 市川保子(編), 『日本語誤用辭典』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2010, pp. 400-403.

33) 본고에서 사용한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녹음 데이터는 김혜민(2019a), (2019b)과 동일한 데이터임을 밝힌다.
김혜민, 「談話データを用いた韓日バイリンガル兒童の言語使用の事例研究」,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일본언어문화』 87, 2019a, pp. 71-87.
김혜민, 「사례 연구: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코드 스위칭의 화용론적 기능」,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80, 2019b.

2)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코퍼스

본고에서 사용한 코퍼스는 I-JAS(International corpus of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로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횡단 코퍼스이다. 해외 JFL(Japanese as a foreign lanugauge)환경의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외국인의 발화를 녹음한 것으로, 스토리텔링, 대화, 롤플레이, 그림 묘사, 스토리 라이팅으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그중 50명의 한국인 학습자의 스토리 라이팅을 제외한 발화 데이터에서「のに」의 사용을 검색하였다.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은 J-CAT(Japanese Computerized Adaptive Test)에 의해 청해, 어휘, 문법, 독해 가 종합적으로 측정되었다.

4. 조사 결과

1)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G

조사 결과 아동G의 자연 담화에서는「のに」의 사용이 2017년 1차 조사에서 28회, 2018년 2차 조사에서 123회 나타났다. 이 중 1차 조사의 2회와 2차 조사의 8회는 의미불명으로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のに」의 사용 중에서 오류는 1차 조사에서는 13회, 2차 조사에서는 59회 나타났다. 오용률은 1차 조사에서 50.0%, 2차 조사에서 51.3%로 조사 회차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2〉 아동G의「のに」의 오용률

	1차 조사	2차 조사
「のに」의 오용률	50.0%(13회)	51.3%(59회)

아동G의 오용률의 평균은 51.1%로 川口(2019)[34]의 초등학교 저학년 63%에 비하면 약 10% 정도 적은 수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용률을 보여준다.

「のに」오류를 의미에 따라 각각 분류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의미에 따른「のに」오류 분류

	1차 조사	2차 조사
배경 제시	53.8%(7회)	37.3%(22회)
이유 제시	7.7%(1회)	3.4%(2회)
시간 제시	23.1(3회)	1.7%(1회)
けど와의 혼동	15.4%(2회)	15.2%(9회)
ても와의 혼동	0%(0회)	3.4%(2회)
「のに」와 다른 용법의 종조사	0%(0회)	39.0%(23회)
	100%(13회)	100%(58회)

1차 조사의 경우 배경 제시가 53.8%로 가장 높며, 그다음으로는「けど」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가 높았다. 2차 조사에서는 여전히 배경 제시와「けど」의 혼동이 높으나 종조사 용법으로 사용되는「のに」가 39.3%로 매우 높았다.

(11) 違うゲイムもあるのに、どんなゲイムする、ママ？
(다른 게임도 있는데 어떤 게임 할래 엄마?)
(11′) 違うゲイムもあるけど、どんなゲイムする、ママ？
(12) この子がどこかに探し、隠れたのに、10まで數えるまで探してね。
(이게 어디 찾, 숨었는데 10까지 셀 때까지 찾아.)
(12′) この子がどこかに探し、隠れたから、10まで數えるまで探してね。

34) 앞의 논문, pp. 202-205.

(13)
G ママは何色好き？(엄마는 무슨 색 좋아해?)
M 黄色。(노란색)
G 黄色？(노란색?)
G 黄色は違う子なのに。(노란색은 다른 건데.)
M 赤、赤。(빨간색, 빨간색)
G 赤？(빨간색?)
G 分かった。(알겠어.)

(13′) 黄色は違う子だよ。

(11)에서는 다른 게임도 있다는 배경을 선행절에서 제시한 뒤 후행절에서 어떤 게임을 할지 묻고 있다.「のに」의 대조나 예상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며, 후행절의 배경 제시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제시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특별한 의미 관계가 성립된다기보다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효과적인 이야기 전개를 위해 선행절에 나타난다. 이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11′)처럼「のに」를「けど」로 고쳐야 한다. (12)에서는 10까지 셀 때까지 찾으라고 하는 후행절의 이유, 근거를 선행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는데」의 의미로「のに」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때「のに」는 (12′)처럼「から」로 바꿔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13)에서는 어머니에게 노란색은 다른 거라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종조사로「のに」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한국어라면 종결어미로「는데」를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아쉬움이나 불만 등의 감정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のに」의 사용은 부자연스럽다. 이 경우 종조사 없이 쓰거나「けど」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연결어미「는데」를 문장의 끝에서 종결어미로 사용하는 현상은 한국인들의 실제 발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아동G가「는데」를 종결어미로 자주 사용하던 언어 습관이「のに」의 오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I-JAS 코퍼스를 사용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のに」 사용을 조사한 결과, 접속조사 「のに」는 총 36회 나타났다. 그중 「のに」의 오류는 3회였다. 오용률은 8.3%로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평균 오용률 51.1%나 川口(2019)[35]의 평균 오용률 62.8%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횟수가 매우 적긴 하지만 오류를 의미에 따라 나누어 보면 배경 제시가 1회, 이유 제시가 1회, 「けど」의 혼동이 1회 나타났다.

(14) 「この匂いが似合うと思ってこれ買ったよ」と言ったのに、まあ本当に僕が好きな匂いで。
('이 냄새가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라고 말했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냄새라서.)
(14′) 「この匂いが似合うと思ってこれ買ったよ」と言ったけど、まあ本当に僕が好きな匂いで。

위의 예(14)[36]에서는 선행절에서 친구에게 향수를 받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のに」에는 포함되지 않고 「는데」에만 포함되는 배경 제시의 의미를 「のに」로 나타낸 것이다. 이 문장은 대조나 예상외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のに」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けど」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이 오류의 화자는 각기 다른 세 명이었는데, 일본어 능력은 모두 250점에서 300점 사이로 상급 레벨에 속했다. 다른 일본어 접속조사인 「から・ので」의 오류가 주로 초급에서 많이 나타나며, 학습 레벨의 상승에 따라 그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윤상한

35) 앞의 논문, pp. 202-205.
36) (14)의 예문은 I-JAS 코퍼스에서 발췌하였다.

・최연주 2017)[37]에 비해「のに」의 오류는 상급 레벨에서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용률을 보면 상급 레벨에서는 90%, 중급 레벨에서는 100%였다. 그러나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5.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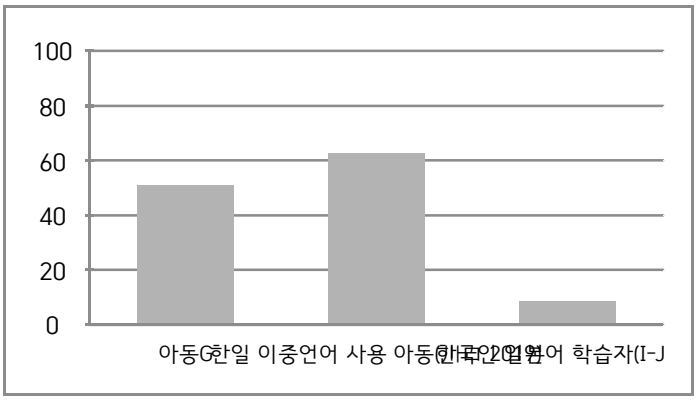
본고에서 조사한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のに」의 오용률은 평균 51.1%이다. 이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のに」의 평균 오용률이 62.8%이라고 한 川口(2019)[38]보다 약 10% 정도 적은 수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용률을 보여준다. 아동의「のに」오용은「けど」와의 혼동도 적지 않았지만 배경 제시와 종조사에서 주로 나타났다. 배경 제시와 종조사는「けど」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한국어 연결어미「는데」의 일부 의미가「のに」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のに」에 대응하지 않는「는데」의 의미까지「のに」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코퍼스에서도「のに」의 오류가 나타났으나, 오용률이 8.3%로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에 비해 매우 낮았다.

---

37) 윤상한, 최연주,「접속조사「から・ので」의 습득에 관한 연구-학습 레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일본연구』73, 2017, pp. 204-208.

38) 앞의 논문, pp. 202-205.



〈그림 1〉 집단별「のに」의 오용률

배경 제시나 이유 제시로「のに」의 오용이 나타난 것은 모어인 한국어의 전이로 볼 수 있으나 오용률이 낮은 것을 통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のに」에는 없고「는데」에만 존재하는 의미를「のに」가 아닌 다른 연결어미로 잘 대응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 비해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のに」사용은「のに」에는 없고「는데」에만 존재하는 의미까지 모두「のに」로 확장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のに」를 의미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는데」의 번역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Nan Jiang(2004)[39]에 의하면 제1언어의 의미 체계가 제2언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련된다. 제2언어의 어휘 학습에 있어 처음에는 제1언어의 의미 체계에 의존하지만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치며 점차 제2언어의 의미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간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체계의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제2언어의

39) Nan jiang, "Semantic transfer and its implications for vocabulary teaching in a second languag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8*(3), 2004, 417-420.

어휘가 제1언어의 번역에 의존하는 어휘 연관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2언어의 어휘와 의미가 직접 연결되며 제1언어의 번역 활동이 줄어든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2언어의 어휘와 의미가 완전히 결합하며 제1언어의 정보가 제2언어의 의미 학습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 본고에서 나타난「のに」의 오류는 이 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번역에 의존한 일본어 어휘의 오류의 예로는 한국어「잘」과 일본어「よく」가 있다. 일본어「よく」는 한국어「잘」의 대응어로 알려져 있는데, 정은정・永谷(2008)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이「잘」의 의미 중에서 일본어「よく」에 대응되지 않는 의미까지 모두 일본어「よく」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잘」과 같이 한국어의 단어 사용의 범위가 넓을 경우「よく」에 대응하지 않는 의미까지 대응해 버리는 것이다(정은정・永谷 2008).[40] 이는 본고에서 다룬「のに」의 오류와 매우 유사한 오류의 형태이다.

그러나「のに」의 오류가 성인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보다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 것은 학습자보다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두 어휘의 의미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하고「는데」의 의미를 모두 일괄적으로「のに」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일본인 어머니에 의해 자연 습득하고 있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환경에서도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어의 어휘에 비해 대응하는 한국어의 어휘의 범위가 더 큰 경우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펠(2009)[41]은 성인 학습자가 어린 학습자보다 훨씬 더 전이를 보인다고 가정하

40) 정은정・永谷直子,「「잘」과「よく」의 대응관계 고찰」, 한국일어일문학회,『일어일문학연구』67, 2008, pp. 393-412.

41) 앞의 책, p. 172.

였으나, 본고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川口(2019)[42]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서 모두 일본어 능력과 상관없이 고르게 「のに」의 오용률이 높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조사한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G 역시 중상 레벨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어머니의 인터뷰에 의하면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일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나 조사 회차에 따른 오용률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일본어 능력이 상급 레벨인 세 명에게서만 「のに」의 오용이 나타난 것을 통해, 「のに」의 오용이 제2언어인 일본어 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본고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일본어의 어휘에 비해 대응하는 한국어의 어휘의 범위가 더 큰 경우, 한국어 의미에 일본어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형태를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매우 한정적인 어휘와 대상자를 대상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한일 이중언어 사용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のに」와 「는데」와 같은 관계의 다른 어휘의 오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고에서는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발화에서 일본어 연결어미 「のに」를 한국어 「는데」의 번역어로 사용하는 오류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동의 오용률은 51.1%로 川口(2019)[43]의 62.8%보다는

42) 앞의 논문, pp. 202-205.
43) 앞의 논문, pp. 202-205.

적은 수치였지만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8.3%에 비하면 매우 높았다. 「のに」의 오류에는 「のに」에는 포함되지 않고 「는데」에만 포함되는 배경 제시, 이유 제시, 종결어미 등이 나타났으며, 일본어 「けど」와의 혼동에 의한 오류도 적지 않았다. 「けど」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배경 제시와 종조사의 의미를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일부 의미가 「のに」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のに」에 대응하지 않는 「는데」의 의미까지 「のに」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のに」의 오용률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률보다 높은 것은 교실에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성인 학습자보다 일본인 어머니에 의해 자연 습득하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오히려 모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어의 어휘에 비해 대응하는 한국어의 어휘의 범위가 더 클 경우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 습득 환경에 따른 모어의 영향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어휘에 비해 대응하는 한국어의 어휘의 범위가 더 큰 다른 어휘를 조사하여 두 집단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의 도출을 위해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のに」의 오용률을 종적으로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19년 5월 18일)
I-JAS https://chunagon.ninjal.ac.jp (검색일: 2019년 5월 18일)
J-CAT http://www.j-cat.org/html/ja/pages/interpret.html

國立國語研究所, I-JAS構築に關する最終報告書, 2016

2. 논문

김혜민, 「談話データを用いた韓日バイリンガル兒童の言語使用の事例研究」,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일본언어문화』 87, 2019a, pp. 71-87.
김혜민, 「사례 연구: 한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코드 스위칭의 화용론적 기능」,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80, 2019b.
손옥현・김영주,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28, 2009, pp. 49-71.
손재은, 「연결어미 '-ㄴ데'의 수업 지도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18, 2007, pp. 181-199.
유남숙, 「「のに」と「는데」の對照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48.
윤상한, 최연주, 「접속조사 「から・ので」의 습득에 관한 연구-학습 레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73, 2017, pp. 195-218.
이기동, 「연결어미 '-는데'의 화용상의 기능」,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40, 2000, pp. 117-142.
이소현, 「구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수사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22-4, 2011, pp.273-197.
이소현,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1-196.
정은정・永谷直子, 「「잘」과 「よく」의 대응관계 고찰」, 한국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 67, 2008, pp. 393-412.
조민하, 「'-는데'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40, 2011, pp225-254.

家田章子, 「文末の「ノニ」に關する考察」, 名古屋大學言語文化研究會, 『ことばの科學』 18, 2005, pp. 201-218.
池上素子, 「「のに」・「ながら」・「ものの」・「けれども」の使い分けについて」, 北海道大學留學生センター紀要 1, 1997, pp.18-38.
池上素子, 「「けれど」と「のに」」, 北海道大學留學生センター紀要 3, 1999, pp. 15-29.

川口慶子,「韓國における継承日本語に關する研究」,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pp. 1-299.
櫻井惠子,「韓國の日本語學習者の談話展開の分析-接續表現を中心に」,『일어일문학연구』 제35집, 1999, pp.281-303.

Nan jiang, "Semantic transfer and its implications for vocabulary teaching in a second languag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8(3), 2004, 416-432.
Selinker, L,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1972, pp. 209-231.

3. 단행본

아펠 지음, R. 김남국 역,『언어접촉과 2개언어 상용』, 동인, 2009, pp. 1-380.
市川保子(編)『日本語誤用辭典』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2010. pp.400-403.
前田直子,『日本語の複文』, くろしお出版, 2009, pp.185-219.

(투고일: 2019. 5. 26. 심사완료일: 2019. 6. 20. 게재확정일: 2019. 6. 20.)

성명: 김혜민
소속: 도쿄대학교 대학원 언어정보과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전자우편: nihilium@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Error of 「のに」 by Korean-Japanese Bilingual Child

- In Comparison with Corpus of Korean Japanese Learners -

Kim, Hye-mi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rrors of 「のに」 in the discourse of the Korean-Japanese bilingual child, and compare to the study of the Korean-Japanese bilingual children and the errors of Korean Japanese learners. The error rate of 「のに」 in the Korean-Japanese bilingual child is higher than Korean Japanese learners. The most of the errors are using 「のに」 with meaning of 「는데」 which is not included in 「のに」. The high error rate means that bilingual children naturally acquired from Japanese mother are more affected by mother tongue than adult learners who learn Japanese in classroom. Especially, if the range of the meaning of Korean word is larger than that of the Japanese, it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problem in acquisition. Bu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for a generalized conclusion.

Key words: Korean-Japanese bilingual children, Language errors, Korean japanese learner, Language transfer, Conjunctive ending